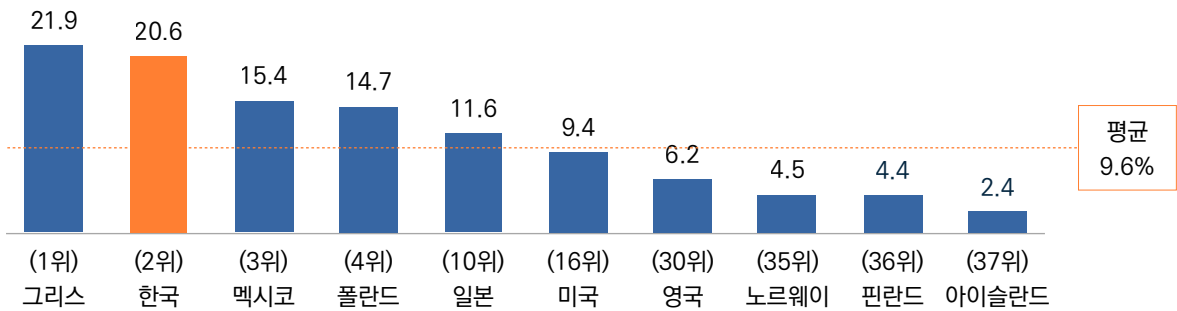




##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, OECD 주요 37개국 중 최상위권!

- ▶ OECD의 「How's Life? 2020 리포트」에 따르면 2016~2018년 OECD 평균 '사회적 고립도' 즉,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(9.6%)인 것으로 조사됐다.
- ▶ 이를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,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 주요 37개국 중 그리스 21.9%(1위)에 이어 20.6%로 최상위권인 2위에 랭크됐다. 반면 사회적 고립도가 낮은 국가로는 노르웨이, 핀란드,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로 나타났다.

[그림]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(2016~2018 평균, 주요국, %)



\*자료 출처 : 노컷뉴스, '빈곤이 낳은 '외로운 죽음'...취약계층에 왜 늘어갈까' 기사 참조 (<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831349>)

\*\*원자료 출처 : OECD, 'How's Life? 2020: Measuring Well-being, 2020.03.0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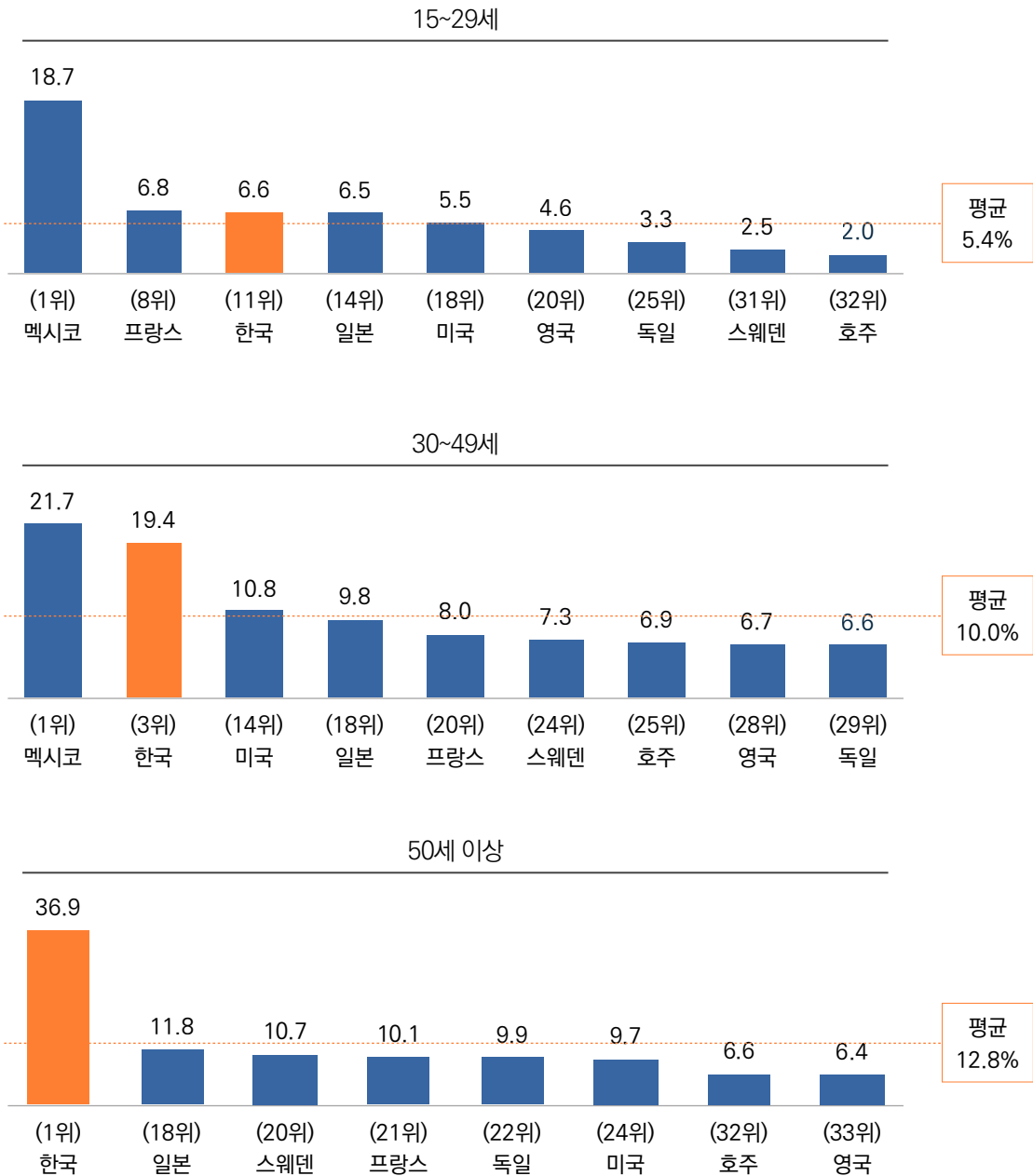
(Gallup World Poll (database), [www.gallup.com/services/170945/world-poll.aspx](http://www.gallup.com/services/170945/world-poll.aspx).)

Note. 통계청의 '국가지표체계' 사회적 고립도 지표(통계표: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)에 따르면 '사회적 고립도'(국제 비교)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을 명시함.(다음의 링크화면 하단의 '보조지표 및 국제통계' 참조)  
(<http://www.index.go.kr/unify/idx-info.do?idxCd=4272>)

## ◎ 한국인, 50세 이상 사회적 고립도 OECD 1위!

- ▶ 이번에는 OECD 국가의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를 살펴보았다.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의 OECD 평균을 보면 '15~29세' 5.4%, '30~49세' 10.0%, '50세 이상' 12.8%로 전체적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.
- ▶ 한국은 '15~29세'에서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, '30~49세'와 '50세 이상'에서는 각각 OECD 평균 대비 각각 2배, 3배 가량이나 높게 나타났다. 특히,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이 36.9%로 사회적 고립도 1위를 기록했다.

[그림] OECD 주요국 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(주요국, %)



\*자료 출처 : 노컷뉴스, '빈곤이 낳은 '외로운 죽음'...취약계층에 왜 늘어갈까' 기사 참조 (<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831349>)

\*\*원자료 출처 : 한국노동연구원, 통계프리즘 '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수(조규준)' 참조, 월간 노동리뷰 7월호